

해외 주요 잔돈금융 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Summary

‘잔돈금융’은 잔돈을 자동으로 적립하여 저축 또는 투자에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모바일 기기는 친숙하지만 저축과 투자에는 소극적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성장 중이다. 미국의 Acorns는 자사 앱과 연동된 카드 이용 시 결제금액을 ‘올림(round up)’하여 잔돈을 조성하고 이를 투자하는 잔돈금융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 업체이다. Qapital은 소비관리 및 자동저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업체로서, 특히 일정 규칙(rule)에 따라 자동으로 소액을 저축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Revolut는 선불카드, 환전 및 가상화폐 구매, P2P 결제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업체로서, 올림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 기능 또한 보유하고 있다. Qoins는 올림 또는 기간별 자동적립을 통해 조성한 금액으로 이용자가 보유한 부채를 상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핀테크업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국내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연구소 장명현 연구원 02-2011-0674/julianminci@crefia.or.kr

- (개요) ‘잔돈금융’은 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잔돈을 이용한 자동저축 및 투자 서비스로서, 모바일 기기는 친숙하지만 투자와 저축에는 소극적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성장 중
 - ‘잔돈금융1)’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올림(round up)’을 통해 잔돈을 기록하고 이를 자동으로 저축 또는 투자하는 서비스를 지칭
 - 이용자가 25.45달러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이를 ‘올림’한 26달러와의 차액인 55센트가 잔돈으로 기록되며, 이를 적립하여 자동저축 서비스를 제공
 - 금융위기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한 젊은 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낮은 소득, 강화된 금융규제, 급증한 학자금대출 부담 등으로 투자 또는 저축에 소극적
 - ‘17년 조사2)에 따르면 미국 18~24세 청년층 중 46%가 저축액이 전무한 상태
 - 잔돈금융 서비스는 저축 및 투자를 할 여유가 없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하고 간편한 소액저축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1) Acorns는 ‘잔돈을 투자하세요(Invest your spare money)’라는 홍보문구를 사용 중이며, 해외 언론은 ‘올림 앱(Round-Up Apps)’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정확히 지칭하는 개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내의 경우 조은진 외, 「2016 한국이 열광할 12가지 트렌드」에서 ‘잔돈금융’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것으로 보임

2) GoBankingRates, ‘More Than Half of Americans Have Less Than \$1,000 in Savings in 2017’(2017.9.12.)

□ (Acorns) 자사 앱과 연동된 카드 이용 시 결제금액을 ‘올림’하여 잔돈을 조성하고 이를 투자하는 ‘잔돈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업체

- (특징) Acorns는 잔돈금융 서비스의 선구자이자 가장 대표적인 업체³⁾
 - 이용자가 자사 앱과 연동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때 ‘올림(round up)’을 통해 잔돈을 기록하고, 이를 투자하는 것이 Acorns의 핵심 서비스
 - 기록된 잔돈이 일정금액(최소 5달러)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이용자의 계좌(Funding Source)에서 투자계좌(Round-Up account)로 이체되는 형식으로 운영
- (이용료 및 기타) Acorns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월 1~3달러의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 캐시백 금액을 투자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 Acorns의 기본 서비스(Acorns Core) 이용료는 월 1달러이며, 2달러 또는 3달러를 지불할 경우 개인퇴직연금계좌(IRA)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
 - 대학생인 경우 Acorns Core를 무료로 이용 가능
 - 또한 Acorns는 자사 앱 또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경유하여 제휴 가맹점에 접속 후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금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계좌로 입금해주는 Found Money 서비스도 운영중⁴⁾

Acorns의 일반 현황

국가	미국	본사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설립년도	2012	웹사이트	www.acorns.com
사원수	251-500명	자금조달규모	2억700만달러(약 2,400억원)

자료 : crunchbase

□ (Qapital) 소비관리 및 자동저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업체로서, 특히 일정 규칙(rule)에 따라 자동으로 소액을 저축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음

- (특징) Qapital은 앱을 통해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소액을 저축하는 서비스 및 항목별 소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핀테크업체
 - 점포별 목표 예산을 설정한 후 해당 예산보다 지출을 적게 할 경우 차액을 저축하는 Spend Less Rule, Apple의 운동 관리앱과 연동하여 일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저축하는 Apple Health Rule 등이 존재

3) Forbes, ‘The 5 Best Round-Up Apps For Saving Money’(19.06.28.)

4) 온라인 쇼핑 캐시백 사이트 Ebates, 또는 국내 카드사의 쇼핑몰 연계 서비스와 유사

- 특히 '올림 규칙(Round Up Rule)'은 이용자가 설정한 올림액수에 따라 카드 결제 시 잔돈을 기록하여 자동으로 저축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Acorns와 유사
- (이용료) Qapital의 기본(Basic) 이용료는 월 3달러이며, 6달러(Complete), 9달러(Master)를 지불할 경우 투자자문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

Qapital의 일반 현황

국가	미국	본사	뉴욕주 뉴욕
설립년도	2012	웹사이트	www.qapital.com
사원수	51-100명	자금조달규모	4,730만달러(약 554억원)

자료 : crunchbase

□ (Revolut) 선불카드, 환전 및 가상화폐 구매, P2P 결제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업체로서, '올림'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 기능 또한 제공

- (특징) Revolut는 기존 은행계좌를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수료 없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
 -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계좌관리서비스, 해외여행시 결제인출서비스, P2P이체서비스, 가상화폐서비스 등을,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다중통화결제이체서비스, 선불법인카드, 오픈 API 서비스 등을 수수료 없이 제공
 - 단, 일정 한도 이상의 환전 및 ATM인출 서비스 또는 특정 시간대의 국제송금서비스 이용 시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
 - Revolut는 '18년 5월 '올림' 또는 기간별 자동적립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 기능인 'Vaults'를 출시하여 서비스 중
- (이용료) Revolut의 기본 이용료는 무료이나, 환전 및 예금인출 수수료 무료 서비스 제공한도에 따라 월 6.99파운드(Premium), 12.99파운드(Metal)의 추가 이용료 필요

Revolut의 일반 현황

국가	영국	본사	런던
설립년도	2015	웹사이트	www.revolut.com
사원수	630명	자금조달규모	3억3,640만달러(약 3,940억원)

자료 : crunchbase

□ **(Qoins)** Qoins는 ‘올림’ 또는 기간별 자동적립을 통해 조성한 금액으로 이용자가 보유한 부채를 상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업체

- (특징) Qoins는 ‘올림’ 또는 기간별 자동적립을 통해 조성한 금액을 통해 이용자의 신용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부채를 상환하는 서비스를 제공
 - Qoins는 잔돈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 대비 소규모 신생업체이나 저축이나 투자가 아닌 부채상환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
- (이용료) 월 1.99달러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이용료는 월 1회 이루어지는 부채 상환 시 상환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

Qoins의 일반 현황

국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웹사이트	qoins.app
설립년도	2017	자금조달규모	2만달러(Seed 단계)

자료 : crunchbase

□ **(시사점)** 최근 해외에서는 핀테크업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혁신적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국내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